

## “새단장 개웅산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정상의 노후 전망데크 철거, 안전·편의시설로 재설치  
주변 진달래 1400주-황매화 1400주 등 식재  
노약자 등 보행약자 쉽게 '무장애 데크 산책로'도 개통  
쉼터 3개소 설치, 야간 편리 태양광 조명시설도



개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 구로구가 이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다. 개웅산은 구가 2014년 조성한 '명품구로올레길' 구간의 일부로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정상에는 구로구를 조망 할 수 있는 새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또한 개웅산 자락길은 길이 1.1km, 폭 2.2m 무장애 산책로를 지난해 말 조성했다.

개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로구가 이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다.

개봉동 산53-3번지에 위치한 개웅산(해발 126m)은 구로구가 2014

년 조성한 '명품구로올레길' 구간의 일부로 주민들이 휴식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공간이다.

개웅산 정상에는 전망데크가 있었으나,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구로구는 기존 전망데크를 철거하고 115㎡ 규모로 새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데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했으며 주변에는 진달래 1400주, 황매화 1400주를 심었다. 공사는 지난 6월 시작, 최근 마무리됐다.

새로 조성된 전망데크에서는 구로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구로구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웅산 자락길도 지난해 말 개통했다.

개웅산공원 일대를 둘러싼 개웅산 자락길은 길이 1.1km, 폭 2.2m 규모의 무장애 산책로다. 유모차, 휠체어 등을 쉽게 밀 수 있게 경사도를 8% 이하로 설계하고 친환경 목재 데크로드를 설치했다.

산책 중 쉴 수 있도록 작은 쉼터 3개소, 등반의자 6개를 설치하고 야간 이용자를 위해 태양광 조명도 달았다.

한편 개웅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도 갖춰져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평소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꾸며 놓은 시설이다. 개웅산 생활체육관 뒤편에 2,800㎡ 규모로 자리 잡은 유아숲체험원에는 폐목재를 활용한 나무의자, 테이블, 흔들다리 등의 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다. <김유권 기자>

## 구민 1차 백신접종률 50% 넘었다

21만6,350명 접종... 2차도 11만6,543명 마쳐 27%  
접종 부작용 건수도 늘어... 사망 5건 등 누적 1,072건



구로 관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돼 누적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6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등 전국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돼 누적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관내 백신 접종률이 구로 전체 인구 대비 26일 0시 기준 1차로 50%를 넘어섰다. 또한 2차(접종 완료)도 27%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7면>

26일 구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1만6,350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 내·외국인 포함 42만4,582명(2021년 6월 기준)의 51%에 해당한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 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1만6,543명이다. 이 수치는 인구 대비 27%다. 한편 진행되고 있는 18~49세 일반 대상 백신 접종예약은 26일 0시 기준으로 전체 13만7,003명 가운데 9만3,701명이 예약을 완료해 68%

의 예약률을 보였다. 문영신 구로구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며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장년층도 추가 예약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함께 접종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5건 포함 1,072건으로 1천건을 넘어섰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1,072건을 증상별로 보면 26일 0시 현재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5명 △아나필락시스 9건 △기타 8건 △경미 증상 1,050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다가구 주택·원룸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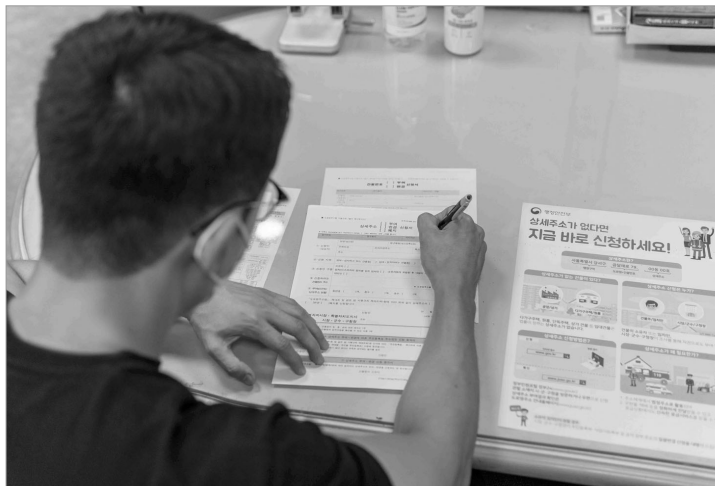
## 우편물 정확 배송, 응급상황 신속 대응... 동·층·호미등록 건물 대상 건물소유자·임차인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민원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을 통해 357건, 직권으로 1772건을 부여해 총 2129

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3184. <채홍길 기자>

# 서울남부보훈지청 용교순 신임 지청장 부임

국가보훈처 용교순(사진) 서기관이 지난 8월 18일 제28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용교순 지청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별도의 취임식 대신 각 부서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갖고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확산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성실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 지청장은 1990년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국가보훈처 처장비서관,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양홍준 지청장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기 동부보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홍길 기자>

# 관악고용센터, 지역 전략업종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로 관내 관악고용센터는 지역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정보 통신IT)에 대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취업(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전략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악고용센터에서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기업, 구직자, 이직(예정)자 등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한다.

지역 전략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채용수요 파악과 함께 ‘괜찮은 구인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때 신규고용창출장려금 등

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업종·직종별 협회, 각급 학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업종에 적합한 구직자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의욕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등 취업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관악고용센터의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은 별도의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팩스(02-6915-4101)를 통해 구인신청 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의회 박동웅의장,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방문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8일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2018년 개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 악기·댄스·밴드·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은 연면적 1,967㎡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월드카페, 2층에는 스튜디오와 공작실, 3층과 4층에는 동아리실, 연습실, 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를 방문한 박동웅 의장은 구로구청 관계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을 맡고 있는 운영사업단 전선행 단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 현황을 살핀 후,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전선행 단장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8일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치며 박 의장은 “장기

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에 강점이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구정연구 보고서 발간 배포

구로구가 주민 생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을 분석해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구정연구 보고서(사진)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 구정연구 보고서는 지역경제, 도시계획, 복지·다문화 분야로 구성됐다. 지역경제 분야는 구로디지털단지(G밸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작성해 올해 3분기 경기 전망과 코로나19 경기 회복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G밸리 1~3단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단지별 산업과 규모별 특징을 확인했다. 제조업체의 탄소중립 조사 내용도 수록했다.

도시계획 분야는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개선 시 자치구 현안을 반영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력 연구



를 실시했다. '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조사하고 주요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복지·다문화 분야는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구로구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실태와 지역 특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로구는 보고서를 구청 각 부서와 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서울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연구원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전화: 02)830-0905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등목번호: 010-9096-1144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채홍길 기자>

# 2117년 서울 인구 262만명... 현재의 27%로 '뚝'

## 뉴스 분석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운이 달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4억명의 중국은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도 부족해서 지난 6월에는 1가구 3자녀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웃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젊은 인구층이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계제일 장수 국가인 일본의 평균 수명은 현재 85.3세로 조사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는 한편, 육아 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여성 복지 정책 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추진중

우리의 인구 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도입되어 증가하는 출생아 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대체출산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을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5-2020년)을 추진 중에 있다.

### ◇ 100년 후 서울 인구 262만명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 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나와 있다. 통계청은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를 했으나 100년 후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명,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명으로 4분의 1토막날 것으로 추계됐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342만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50년 후엔 191만명, 100년 후엔 21%에 불과한 73만명으로 쪼그라든다.

대구는 2017년 246만명에서 50년 뒤엔 142만명, 100년 후엔 지금의 22%인 54만명으로 수축한다.

2017년 150만명이었던 광주는 50년 뒤 91만명, 100년 후엔 35만명으로 지금의 23%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마다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천279만명에서 2067년엔 1천65만명, 2117년엔 441만명으로 지금의 3분의 1토막이 된다.

다른 시도의 100년 후 인구는 강원도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 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명, 100년 후엔 27%인 262만명으로 4분의 1 토막날 것으로 추계됐다.

(58.3%), 전북(57.9%), 충남(56%), 충북(55.6%)은 100년 뒤 고령인구 비중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 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 2025



즉 고령자가 가임기 여성인구보다 배가 많으면 현상 유지가 어렵고, 5배가 많으면 공동체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역 소멸 위험 분석에 참여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저출산 추세로 보면 이번 추계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제 지역 소멸 속도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물고 울 사회·경제·정치적 충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이다"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 지향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지역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인구 증가 해답은 '혼인을 증가'

인구정책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느냐에 있다. 그 답안은 혼인을 증가 밖에 없다. 한국인의 민족 특성상 일본처럼 이민을 받아 들어서 다문화 국가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기존 부부들에게 출산을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줄어들고 있는 혼인율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끌어 올려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2020년 시도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13,502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25,657건이 줄어 들었다. 우리나라 혼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30대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거비, 고용 등 경제적 여건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취소, 연기 증가, 외국인 입국 금감으로 국제 결혼(-35.1%) 감소에 있다.

### ◇혼인을 끌어 올리면 인구 저절로 증가

혼인율을 끌어 올리면 저절로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결혼 적령기 30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질적으로 주거비, 고용 등의 경제적 여건을 무작정 도와주는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짝 만들어 주기' 운동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결혼이 필요하다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만수 기자>

## 국내 인구 5천136만명서 50년후엔 3천689만명 65세 이상 인구, 현 13.8%서 50년 후엔 49.5% 저출산-인구 절벽의 극복 '해답'은 '혼인율 증가' 지자체가 앞장서 '짝 만들어주기' 운동 등 펼쳐야

(2017년 152만명)가 48만명, 충청북도(161만명)는 53만명, 전라북도(183만명)는 48만명, 전라남도(180만명)는 49만명, 경상북도(268만명)는 70만명, 경상남도(334만명)는 85만명, 제주도(63만명)는 27만명, 인천(292만명)은 95만명, 대전(153만명)은 41만명, 울산(116만명)은 26만명으로 인구가 할렁해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천136만명에서 2067년엔 3천689만명으로 감소하며,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천5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 ◇ "강남·관악·광진·마포만 남는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으나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은 2047년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30%를 넘고, 2067년엔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40%를 초과하며, 2117년엔 울산(48.9%)과 세종(49.7%)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60.7%), 강원(59.9%), 경북

서울의 경우 2047년엔 종로·성동·중랑·은평·서초·강서·송파 등 23개 구가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며, 2067년엔 노원·금천·종로 등 15개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100년 후인 2117년엔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 ◇지역소멸 속도 빨라 질 수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신생 도시인 세종시는 과거 인구 데이터가 없어 이번 소멸 위험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0.5는 '인구소멸 위험단계' 0.2 미만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분류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가을꽃으로 '새단장'

## 구로4동 한·중다문화갈꿈이봉사단, 3곳에 코스모스 심어 오류1동 주민자치회서 주축, 범바위골 등 3곳에 '꽃동산' 조성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던 무단투기 지역이 주민들의 힘으로 가을 꽃내음 가득한 화단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은 구로4동(왼쪽)과 오류1동의 꽃동산>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던 구로구 무단투기 지역이 주민들의 힘으로 가을 꽃내음 가득한 화단으로 탈바꿈했다.

구로4동은 한·중다문화갈꿈이 봉사단(대표 김영희, 이흥철)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조성한 화단의 시든 꽃을 제거하고 코스모스 씨를 심었다. 대상지역은 구로중앙로7길 28 극동아파트 담벼락 측백나무 화단,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공단 앞 무궁화나무화단, 구로동로22길 57 구립 마을공원경로당 앞 마을마당 등 3곳이다.

또 구로4동 주민자치회(회장 안석성)가 앞장 서 구로동로12길 44부터 구로동로12길 60로 이어지는 골목길에는 가을꽃을 식재해 어두웠던 골목길을 아름답고 화사하게 변신시켰다.

오류1동은 주민자치회(회장 김창범)를 주축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범바위골(오류동 31-58), 텃밭 원두막 인근(오류동 313-49)과 오류홈마트 인근(오류동 13-56) 교통섬 인근을 대청소하고 코스모스 등 가을 꽃씨를 심었다.

해당 지역은 예전부터 고질적인 무단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확보한 예산으로 주민들은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원두막, 꽃 화단 등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꽃향기가 가득한 쾌적한 주민 휴게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가을꽃으로 새단장한 화단을 보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개봉2동 소재 '작은숲아지트'가 SH서울도시주택공사와 함께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인성예절캠프를 지난 8월20~21일 비대면으로 구로 지역아동센터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개봉2동 '작은숲아지트'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인성예절캠프 운영 구로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300여명 비대면 참여

개봉2동 소재 '작은숲아지트' (원장 이상숙)는 SH서울도시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인성예절캠프를 지난 8월 20-21일간 비대면으로 구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송파구 키움센터, 초등돌봄어린이 등 300여명에게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작은숲아지트'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 인성예절캠프는 '나래인성서당' 자체 개발 마인드 레크레이션 우수성을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작은숲아지트는 SH서울도시주

택공사에서 도심의 낙후된 시설을 매입하여 청년건축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결과 탄생한 개봉동 주민을 위한 작은 복지공간이다.

올해는 나래인성교육원이 운영자가 되어 주민복지공간 제공, 온라인 부모, 어린이 인성교육 오프라인 영어 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작은숲아지트에서는 하반기 독서교실, 부부 및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구로리공원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 한·중다문화총연합회원 코로나19 방역 자원봉사

서울시가 구로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지난 8월 5일부터 21일까지 구로4동 소재 구로리공원에서 운영했다.

소통과 배려 화합의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로구민의 어려운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서

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회장 김영희) 전체 회원들이 합동으로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다문화 가정과 구로구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회원들은 주민들 검사 안내, 주변 정리 등을 맡았다.

또한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회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소독하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리공원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 “쿨한 안녕, 잘가 여름아!”

## ‘걷기 활성화 챌린지’ 2주간 15만보 이상 걷기 ‘요가 자세 따라하기’ 미션... 100명 선정 선물

구로구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마련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걷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까지 매달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 챌린지’는 2가지 미션을 목표로 펼쳐진다.

첫 번째 미션은 1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15만보 이상의 걸음 수 달성이다. 날짜와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션 기간 내 누적 걸음 수가 명시된 화면을 캡처하면 된다.



두 번째 미션은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 카카오톡 채널에 제시된 요가 자세들 중 3가지를 따라한 인증 사진이다.

챌린지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보건소 신

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를 친구 추가한 뒤 1대1 채팅을 통해 29일까지 2가지 미션을 달성한 사진을 보내면 된다.

구로구는 9월 8일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신발방수커버, 러닝벨트 등 신체활동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매달 진행되는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길 바란다”며 “건강을 챙기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걷기 챌린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보건행정과 02-860-3229, 2609. <채홍길 기자>

# 연화정토사 ‘백중맞이 자비나눔’ 쌀 전달

## 구로 2,3,4동-가리봉동 주민에 276포대



구로4동 도심에 위치한 연화정토사가 지난 8월 24일 백중맞이 자비나눔 이웃돕기행사로 20Kg들이 쌀 276포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천 주지스님, 이원수 신도회장과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로4동 도심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정토사가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 불교의 명절인 백중(百中 음력 7월15일)을 맞아 ‘자비나눔 이웃돕기행사’로 20Kg들이 쌀 276포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연화정토사 주지 성천스님, 신도회 이원수 회장과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민숙경 구로4동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신도회 이원수 회장(70)은 “매년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미(米)공양으로 구로지역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린다”고 말하고 “올해는 구로4동, 구로3동, 구로2동, 가리봉동 주민과 구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새터민 40명과 두산임대아파트 주

민 등 모두 276세대에 쌀 한 포대씩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천 주지스님은 “우리 연화정토사는 구로지역의 작은 사찰이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도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 불교의 이념인 자비(慈悲) 사상을 실천하고, 효(孝)가 내재한 이번 백중에도 신도들이 모은 미공양 쌀 276포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로4동 두산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정토사는 지난 1999년에 개원, 올해로 22년을 맞았다. 신도 정 모씨(여·56)는 “현재 연화정토사에는 50~60대 주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3천여명의 신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 나눔을 포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내내 웃고 떠들며 먹는다면, 또 다른 집은 밥을 먹을 때 말 한마디

어느 집을 가 보든지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의 기품이나 풍습 문화를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반찬의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흰 접시에 정갈하게 차리고, 젓가락과 손가락을 끝을 맞춰서 나란히 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반찬을 차렸는데 국과 밥의 위치가 다르거나 젓가락과 손가락을 대충 올려놓는 집도

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먹기만 한다. 또는 맛있는 반찬만 가려 먹는 집이 있는가 하면, 가리지 않고 차려 있는 반찬 모두를

# 한국인의 밥상 문화 ㉞

있다. 한마디로 밥상을 성의있게 차리느냐, 대충 차려 먹느냐에 따라서 밥상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밥상을 성의있게 차리는 집안의 구성원들은 매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면한 생활을 한다. 상대적으로 밥상을 대충 차리고 배만 부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보다는 힘을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밥을 먹는 방법도 집안마다 다르다. 어떤 집은 밥을 먹는

골고로 먹는 집도 있다. 여기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인품이나 성격은 쉽게 짐작 할 수 있으므로 생각하기로 한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아무리 싸구려 음식을 먹더라도 밥 한 톨 남기지 않는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된 것은 아니다. 설령 어렸을 때 가난해서 늘 배고픔에 살았더라도 치도라도 인간의 허만큼 감사한 것이 없다는 말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가난했을 때의 배고픔은 망각해 버린다. <본지 회장>

# 고대구로병원 ‘ISO 13485’ 국제 표준 인증 획득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가 최근 영국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비에스아이(BSI)로부터 비유럽권 최초로 국제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 실시기관 인증(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센터장 박일호)가 최근 영국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비에스아이(BSI)로부터 비유럽권 최초 국제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 실시기관 인증(이하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

ISO 13485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의 하나로 의료기기의 개발 시스템이 국제적인 요건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박일호 센터장은 “이번 ISO 13485 인증으로 본 센터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게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최고 품질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며 “단순히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개발과정 전반에 사용적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는 지난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국산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유권 기자>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육민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 “어려운 건축행정 민원 무료상담 받으세요”

31일부터 매주 화·목 오후 2~5시... 구청 본관2층 건축과 상담실서

## 학식·실무경험 건축사 12명 위촉

구로구가 전문 건축사와 함께 하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주민들이 건축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건축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건축 문제의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화·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단, 코로나 단계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구로구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며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민원상담실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건축과(02-860-2947)로 문의하면



구로구가 전문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구로 건축사협회에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건축사를 추천 받아 12명을 위촉했다. 전문 건축사는 주민과 1대1 상담을 통해 건축분야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제공 분야는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허가 신청시 건축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 건축행위(신축·중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상담(설계, 공사비용)을 비롯해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건축 관련 분쟁 등 민원 해소 방안도 포함된다.

황인 건축과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로구 건축사들의 상담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건축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일상 속 양성평등’ 주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10월 1일부터 15일 구청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양성평등주간 맞아 다양한 비대면 행사도 열어

구로구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 ▲가족, 학교, 직장 내 양성평등 실천사례 ▲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 또는 성별 고정관념을 양성평등 의식으로 전환·확산하는 방법 ▲젠더 대립·갈등 문제 해결방안 ▲잘 알려지지 않은 구로구 역사 속 여성 인물의 삶과 업적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설물 개선 필요성 ▲기타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드라마, 뮤직비디오, 일상기록(브이로그) 등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9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제작된 순수 창작 동영상 콘텐츠면 응모 가능하다.

관내 주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 구청 여성정책과 이메일(dbswj21@guro.go.kr)로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주제 적합성, 작품성, 활용성, 전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작품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상 1명(팀)은 100만원, 은상 1명(팀)은 50만원, 동상 3명(팀)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구로구는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다양한 비대면 행사도 마련한다.

서울기독대학교 김형태 교수의 여성인권 특강과 토크 콘서트 ‘구로여성 토크(TALKTALK)’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내 영유아 보육 가정(50가구)을 대상으로는 ‘수제 향균비누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한편 구로구는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한다. 양성평

등 실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인권 강화 및 안전강화 등 3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여식 없이 개인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만수 기자>

##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구로구가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류동 206-2번지 일대 정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 범위, 대상 구역에 대한 의견 분석, 정비계획(안)의 부문별 상세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전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시청을 원하는 이는 25일부터 27일까지 유튜브에서 ‘천왕3역세권 재개발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문의) 구청 도시계획과 860-2280.

<김유권 기자>

# 9월 다양한 ‘인문학 강연’ 펼친다

커피·미술·음악·뮤지컬·만화... 다양한 분야 작가와 소통

구로구가 9월을 맞아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

먼저 구로기적의도서관에서 ‘인문학 체크인’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연이 마련된다. 3일 박영순 작가(‘커피인문학’ 저자)가 커피 이해와 커피 즐기기, 10일 김찬용 작가(‘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 저자)가 화가 이해와 명화 감상, 17일 황덕호 작가(‘다락방 재즈’ 저자)가 재즈 이해와 재즈 감상법, 24일 박병성 작가(‘뮤지컬 탐독’ 저자)가 뮤지컬 이해와 감상, 뮤지컬 즐기기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강연은 구로기적의도서관 강당과 유튜브 채널 ‘구로기적의도서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오프라인 강연은 선착순 5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연 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서도 강연이 준비된다.

11일 개봉어린이도서관에서 하민석 작가가 ‘하민석 만화작가와 함께하는 만화교실’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초등학생 1~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같은 날 꿈마을도서관에서는 2021년 구로의책 성인부문 김희경 작가(‘이상한 정상가족’ 저자)가



성인 30명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다룬다.

온누리도서관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오선화 작가(‘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8일 공동어린이도서관에서 양양 작가(‘계절의 냄새’ 저자)가 오전 11시 그림책 제작과 감상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한다. 강의는 카카오톡 채널 ‘공동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진행된다.

각 강연의 신청을 원하는 이는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lib.gu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청 문화관광과 860-2363. <김유권 기자>

## 서울남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7명 전수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2시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용교순)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2시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포상식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계승, 선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됐다.

서훈은 일제 식민통치를 비판하

고 민족해방 격문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된 故 박병하 지사(건국훈장 애국장)를 포함하여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등 총 7명에게 추서되었다.

용교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포상식에 참석하신 유가족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독립유공자의 굳건한 독립정신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714명

## 1주일 전 비해 146명 늘어 하루 21명 꼴... 24일 하루 34명 급증

### 서울 확진자 7만6,814명-사망자 578명



수도권 등 전국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누적 확진자가 26일 0시 현재 일주일 전에 비해 146명이 늘어나 누적 2,714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

수도권 등 전국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구로 관내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누적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섰다.

26일 0시 현재 관내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146명이 늘어나 누적 2,71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19일 17명, 20일 15명, 21일 23명, 22일 15명, 23일 14명, 24일 34명, 25일 20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146명이 늘어나 26일 0시 현재 누적 2,714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21명 꼴이다.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3명이고 2,206명이 완치 퇴원, 494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 접촉자 755명, 해외입국자 173명 등 모두 928명이다. 누적 확진자수로 보면 25개구 중 14번째로 중간 순위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6일 현재 모두 7만6,814명으로 사망자는 578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5,521명으로 5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송파구 4,602명 ▲관악구 4,236명 ▲서초구 3,536명 ▲강서구 3,480명 ▲동작구 3,333명 ▲은평구 3,241명 ▲영등포구 3,210명 ▲노원구 3,168명 ▲성북구 2,986명 ▲중랑구 2,977명 ▲강동구 2,927명 ▲마포구 2,917명 ▲구로구 2,714명 ▲양천구 2,603명 ▲광진구 2,549명 ▲동대문구 2,526명 ▲용산구 2,264명 ▲성동구 2,201명 ▲서대문구 2,106명 ▲도봉구 2,073명 ▲강북구 2,051명 ▲금천구 1,436명 ▲종로구 1,212명 ▲중구 1,166명 순이다. <채홍길 기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 특강

## '나 자신 지켜내는 하루 처방전' 9월 10일 유튜브 생중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나 자신을 지켜내는 하루 처방전' 온라인 특강을 펼친다.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와 함께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하지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하루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마음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은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4



시 30분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9월 9일까지 서울시 50플러스 홈페이지

(www.50plu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861-2284. <채홍길 기자>

# 9월부터 심장 초음파도 건보 적용

## 경흥부 초음파 비용 절반수준 줄어

오는 9월부터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결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심은 먼저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 심질환 등을 평가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이나 결핵 질환·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적용됐고, 대부분 심장 관련 수술·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뒤 일정 기간 이내에만 적용돼왔다.

이 같은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

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컸다.

이에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의 검사 필요성이 크고,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횡수를 제한할 경우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횡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흥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 기준 23만7천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8천642원으로 낮아진다. <한만수 기자>

# '18~49세 백신 접종' 앞당겨 추석 전 가능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8~49세 대상자 예약 가능 인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18~49세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추석 이후로 접종이 예정됐거나 아직 예약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접종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공급 물량 확대에 따라 9월 6일 이후 의료기관별 접종 예약 가능 인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 등 9월 초까지 반입되는 물량을 활용해 18~49세 접종 대상자 중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추석 이후로 일정이 잡힌 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을 앞당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예약을 마친 대상자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9월 6일 이후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해 재예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예약자의 경우에도 9월 6일 이후로 접종 일정을 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18~49세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추석 이후로 접종이 예정됐거나 아직 예약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접종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 6일 이전으로 예약을 했다면, 취소할 필요가 없다"며 "주로 늦게 접종 일정이 잡힌 대상자의 일정을 추석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해 예약 취소와 재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둘째 주(9.6~12) 접종 예약은 26일까지 마감 됐으며 9월 셋째 주(9.13~19) 예약은 9월2일까지 가능하다.

<김유권 기자>

# "노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받으세요"

## 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김치냉장고 대상

구로구가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딤채' 김치냉장고에 대한 리콜 홍보에 나섰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뚜껑

형 김치냉장고다. 해당 제품의 무상 점검과 노후 부품 교체 신청은 (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9588)로 하면 된다.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구로구는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식지 등을 활용해 리콜 신청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경택 환경과장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가 1250여건에 달한다"며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주민께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주민·직장인 대상... 9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 강의

구로구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9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PC, 핸드폰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가치성장, 동아리공유, 구로인생학교 등 4개 분야 19개 강좌로 구성된다.

시민참여 분야는 한국NVC(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 대화)센터를 통해 ‘상처주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기’ ‘품격 있는 어른 매너’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공감’ 등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문적인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가치성장 분야는 서울미디어센터와 연계해 ‘집에서 즐기는 꿀잼 영상편집’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1인 영상 크리에이터’ 등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활용능력 전문 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동아리공유 분야는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의 재능나눔을 통해 진행된다. ‘마음을 울리는 시 낭송’ ‘착한 양말목 공예’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삶과 인문학 구로인생학교 분야는 성공회대학교의 우수 자원으로 이뤄진다. ‘그리스 로마 미술’ ‘건축으로 만나는 세계 문화여행’ ‘음악과 삶’ 등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강좌로 이뤄진다.

수강 대상은 구로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인터넷 ‘구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guro.go.kr/III/>)’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평생학습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강료는 무료다.(재료비 별도)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2812. <채홍길 기자>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구키프 어린이기자단’ 모집

## 초등교 3~6학년 40여명 ... 영화제 홈페이지서 접수



이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 작성한 기사는 정기 소식지 구키프 뉴스로 발행 된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열리는 제10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 참석해 영화제의 생생한 모습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여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29일까지 영

화제 홈페이지(movie-guro.or.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어린이 기자단에는 모자, 배지, 기자증 등 기념품이 지급된다. 활동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며, 활동 종료 후에는 인증서와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우수기자에게는 표창과 소정의 상품도 수여된다.

김한기 집행위원장은 “어린이들이 지닌 관심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궁극적 목표다”며 “구키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생각이 전 세대에 전해져 세대간의 소통을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2기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 (사진)을 모집한다.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은 매월 사회 이슈, 학교 문제, 직업 탐험, 영화평론 등 새로운 주제를 어린

**초대시**  
**잊혀진 그리움이 아니야**  
시인 박연숙



격리된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네가 생각났지  
인스타에서 너를 보고  
내 마음이 다시금 심쿵했지  
카카오에서 만나자  
그러자고 용기 내어 말했지  
LED 전광판 ‘파도’에 풍덩  
미디어 아트에서 파도를 타고  
바닷물을 가득어 놓은 거대한 유리벽 안  
‘파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도 파도처럼  
다시 일렁이고 휘몰아칠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수줍게 말했지

난 생각했지  
세계 최초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고

잊혀진 너의 그리움이 파도 되어  
내 가슴 한복판에서 출렁거리고 있었다고  
오예 오예

그것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오예 오예

- 홍익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계간 계간문에 창작수필 등단
- 화가 개인전 및 단체전 53회
- 칸느 미술제 평론가상 ‘최우수상’ 수상
- 실버 모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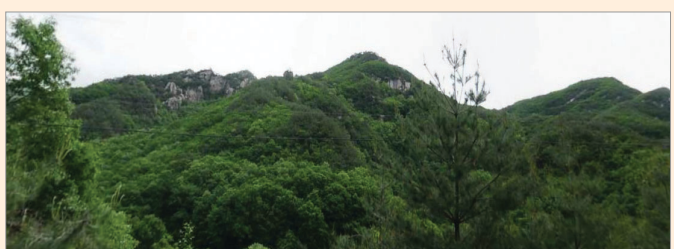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9, 1층

#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 \*장뇌삼 씨를 뿌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